

서학개미, 美 긴축 신호에 ‘깜놀’... 테슬라 매도세 우위 전환

해외주식 Click

흔들리는 美 증시

순매수 1위 애플, 2위 엔비디아 테슬라 4억9501만달러 매도 중국 증시 저점 매수 증가세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매파적(긴축적) 신호에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기술주의 대표주자인 테슬라를 팔아치우고 있다. 또 새해 들어 중국 증시에 대한 저점 매수세가 커지고 있다.

1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주(1월 3~9일) 국내 투자자들은 미국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를 가장 많이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4억9501만달러어치를 팔아치웠다. 서학개미는 두달여만에 테슬라 매수세에서 매도세 우위로 돌아섰다.

〈국내 투자자 해외주식 순매수 상위 종목〉

순위	종목명	순매수 금액
1	애플	1억349만
2	엔비디아	9237만
3	HANG SENG CHINA ENTERPRISES INDEX ETF	7023만
4	ISHARES MSCI ACWI ETF(ACWI)	4850만
5	마이크로소프트	3991만
6	노바백스	3023만
7	로블록스	2225만
8	아이온큐	1979만
9	CHINAAMC CSI300 INDEX ETF	1948만
10	DIREXION DAILY SEMICONDUCTORS BULL 3X SHS ETF(SOXL)	1843만

기간 : 1월 3~9일, 단위 : 달러

/한국예탁결제원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미국 증시는 견고한 고용지표 등을 기반으로 10년물 국채 금리가 한때 1.81% 가까이 상승하자 기술주가 하락을 주도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해외주식 순매수 1위와 2위 종목은 애플, 엔비디아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각각 1억349만달러, 9237만달러를 사들였다.

지난 3일 애플은 자사주 매입과 배당

금 지급으로 인해 전 세계 기업 가운데 최초로 시가총액 3조달러를 돌파하기도 했다.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출시하며 주가가 1년 새 111% 넘게 폭등한 상태다.

새해 들어 중국 증시에 대한 저점매수세도 강하게 나타났다. ‘항셱 차이나 엔터프라이즈 인덱스 ETF(HANGSENG CHINA ENTERPRISES INDEX ETF)’와 ‘차이나 AMC CSI300 ETF(CHINA AMC CSI 300 INDEX ETF)’는 각각 순매수 3위와 9위에 이름을 올렸다. 두 상장지수펀드(ETF) 상품 모두 홍콩 증시에 상장돼 있다. 이 기간 7023만달러, 1948만달러가 유입됐다.

항셱 차이나 엔터프라이즈 인덱스 ETF는 홍콩항셱중국기업지수(HSCEI)를 추종하는 상품이다. 홍콩 증시에 상장된 우량 기업 40여종목에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 차이나 AMC CSI300 ETF는 상하이거래소와 선전거래소의 우량주로 구성된 CIS300 지수를 추종한

다. 중국 본토 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

또 ‘아이셰어즈 MSCI 올 컨트리 월드 인덱스 ETF(ISHARES MSCI ACWI ETF·ACWI)’가 새롭게 순매수 4위에 이름을 올렸다. 아이셰어즈 MSCI 올 컨트리 월드 인덱스 ETF는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MSCI)의 전 세계지수를 추종한다. 미국 3대 자산운용사 중 하나인 블랙록이 운용하고 있으며, 현금성 자산을 포함한 전 세계의 대형주와 중형주에 분산투자가 가능하다. 국내 삼성전자도 0.5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3991만달러) ▲노바백스(3023만달러) ▲로블록스(2225만달러) ▲아이온큐(1979만달러)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불 3X ETF(DIREXION DAILY SEMICONDUCTORS BULL 3X SHS ETF·SOXL·1843만달러) 등이 순매수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농업 전 분야 사업 확장... 글로벌 전문기업 도약” 아파트 분양시장 큰 장 열린다 1분기 14만 2517가구 ‘역대 최다’

IPO 간담회

누보

대신밸런스제7호스팩과 스펙합병 110억 자금 조달... 인력충원 등 활용

기술 기반 농업 전문기업 누보가 오는 3월 대신밸런스제7호스팩과의 스펙합병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다. 누보는 11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합병 상장 후 성장 전략에 대해 밝혔다. 김창균 누보 대표이사는 “지난 2007년 설립 이후 꾸준한 연구 개발 활동으로 업계 내 기술 선도 업체로 지속 성장하고 있다”며 “코스닥 상장을 통해 사업 범위를 농업 전 분야로 확장하고, 수출량도 확대해 글로벌 농업 전문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누보 울산공장 전경. /누보

누보는 농업 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라 발생하는 노동력 축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고기능 농업자재 연구 개발을 취지로 설립됐다. 사업 다각화를 통해 현재 국내 비료 및 유기농업자재 사업, 해외 농식품 및 농자재 수출 사업, 골프장 조경 사업, 가정용 원예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누보는 자체 소재 개발 능력을 기반으로 코팅 비료(CRF·Controlled Release Fertilizer) 제조 기술, 발포 확산성 비료 제조 기술, NPS(Nousbo Plan

t Synergist) 제조 기술을 핵심 기술로 확보해 업계 선도하고 있다.

누보는 울산 공장을 생산 거점으로 두고, 국내 7개 지역 사무소를 기반으로 활발히 영업과 판매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해외에는 미국과 중국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총 31개국에 제품을 수출 중이다.

지난 2020년 연결 실적은 매출액 463억3000만원, 영업이익 18억1700만원, 당기순이익 5억3800만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57.30%, 138.28%, 306.42% 대폭 성장했다.

누보는 이번 스펙 합병을 통해 110억원의 자금을 조달해 생산 설비 증설,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한 마케팅, 전문 기술 인력 충원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합병 후 총발행주식수는 2648만1323주다. 오는 14일 주주총회, 2월 16일 합병 기일을 거쳐 3월 4일 코스닥 시장에 입성할 예정이다. /박미경 기자

이달에만 5만7877가구 분양

올 1분기에 역대급으로 많은 아파트 분양이 예상된다.

1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분기 전국 아파트 분양 및 분양계획 물량은 14만2517가구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1분기 분양 물량 (6만4001건)에 비해 2배를 뛰어넘는 물량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6433가구 ▲경기 5만5438가구 ▲인천 1만1492가구 ▲충북 6898가구 ▲부산 9504가구 ▲경북 8160가구 ▲충남 1만 113가구 ▲대전 3336가구 ▲대구 7556가구 ▲광주 5206가구 ▲경남 7269가구 ▲전남 3654가구 ▲강원도 2243가구 ▲전북 985가구 ▲울산 1550가구 ▲제주 285가구 ▲세종 660가구로 2000년 이후 최다 물량이다.

월별로는 ▲1월 5만7877가구 ▲2월 3만3098가구 ▲3월 3만7780가구다. 올 1분기에 분양이 집중되는 배경은 지난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규제지역 확대 등으로 분양이 연기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3월 대선이 부동산 정책의 변곡점이 될 수 있어 건설사들도 서두르는 분위기다. /이규성 기자 peace@



‘한화 포레나 포항’ 투시도.

주요 단지로 한화건설은 1월 중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학천리에서 ‘한화 포레나 포항 2차’ 84㎡ 350가구를 공급한다. ‘한화 포레나 포항’에 이어 KTX포항역세권 개발 지역에 공급하는 후속 단지다.

대우건설은 1월 중 대구광역시 달서구 본리동 일원에 ‘달서 푸르지오 시그니처’ 84㎡ 아파트 993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164실, 단지 내 상업시설 등 1157가구의 수상복합을 공급한다.

DL이앤씨(디엘이앤씨)는 1월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일원 안양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안양 어반포레 자연&e편한세상’ 4개 단지 2329가구 중 3개 단지 46~98㎡ 1087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박미경 기자

전세계 인플레이션 공포... 국내 채권금리 큰폭 상승

금투협 2021년 장외채권시장 동향

지난해 국내 채권시장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속하에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 통화정책 정상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국내 채권금리는 큰폭 상승(채권값 하락)했고, 장단기 스프레드는 축소됐다. 금투협은 “상반기 채권금리는 미국 등 글로벌 금리 상승, 4차 재난지원금 관련 물량 우려, 한은의 연내 금리 인상 시사 발언 등으로 큰폭 상승했다”며 “하반기에는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우려와

한은의 선제적인 기준금리 인상 등 본격적인 금리 상승국면에 진입하면서 상승폭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코로나19 지속과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정부 및 특수기관의 자금조달 감소 등으로 통안증권, 특수채 및 국채 발행이 감소하면서 채권 발행규모는 전년 대비 15조3000억원(-1.8%) 감소한 829조원을 기록했다.

국채는 적자국채 증가로 120조4000억원이 순발행됐으나, 전년 대비로는 9조6000억원(-4.0%) 감소한 228조4000억원이 발행됐다.

금융채는 전년 대비 16조1000억원(23.0%) 증가한 252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회사채 발행은 금리 상승과 변동성 확대에도 크레디트스프레드는 큰폭 하락 후 상승했지만, A등급 기업들의 자금조달과 투자 수요가 큰폭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6조2000억원(6.4%) 증가한 104조원 발행됐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채권은 기업의 저탄소산업 전환을 위한 녹색채권 및 지속가능채권의 발행 증가로 전년 대비 24조원 증가한 87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장외 채권 거래량은 금리 상승 및 발행규모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114조3000억원 감소(-2.1%)한 5314조2000억원, 일평균 거래는 5000억원 감소한 21조4000억원 수준을 보였다. /박미경 기자

지난해 37개 상장사 액면변경 실시

유가시장 14개사, 코스닥 23개사

한국예탁결제원이 지난해 상장회사 37개사가 액면변경을 실시해 전년(29개사) 대비 27.6%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이 14개사, 코스닥시장은 23개사다. 각각 전년 대비 2개사, 6개사 늘었다. /박미경 기자

액면변경 유형의 경우 주식거래의 유동성 강화 등을 위해 22개사가 액면분할을 실시했으며, 기업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15개사가 액면병합을 실시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5000원에서 500원으로의 액면분할(5개사)이, 코스닥시장에서는 100원에서 500원으로의 액면병합(7개사)이 다수를 차지했다. /박미경 기자